



2024년 / 3월 1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3월 5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024년 정기 이사회가 2월 29일(목) 17시 30분부터 우리 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김 병문 이사장님을 비롯 김건우, 이강안, 문형국, 변주승, 홍성덕, 왕기석 이사 등 모두 일곱 분의 이사님이 참석해 2023년 사업평가와 결산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3호 안건으로 그동안 연구원의 사업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연구원 이강안 원장님과 홍성덕 부원장님이 사임하심에 따라 새로운 원장으로 변주승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의 살림을 앞장 서 꾸려주신 이강안 원장님과 홍성덕 부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직위는 바뀌지만 이전과 다름없이 연구원의 큰 힘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취임 일성으로 연구원의 사회적 시민권 획득과 자생력 증강을 말씀하신 변주승 신임 원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전보다 더 많은 땀과 헌신을 청합니다.

올해는 연구원 사무국을 1국장, 1실장 2간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현행 사무국장 이외에 연구자료실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행정간사와 자료간사 각 1인이 보다 속도감 있게 연구원 사업의 실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역사 속의 오늘

### 드라마 <수사반장> 첫 방송 - 1971년 3월 6일

‘빠라빠라밤 빠라빠라밤’ 비트 강한 주제 음악과 함께 떠오던 흑백 화면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는다면 상당한 나이를 지닌 한국인임에 분명하다. 전원일기 김희장 전에 바바리 코트를 입었던 수사반장 최불암과 그 주변에서 심각한 표정 짓고 있던 형사들, 험악하지만 사연이 있던 범인들이 등장했던 이 1971년 3월 6일 첫 전파를 탔다.

이 드라마는 MBC 자체의 기획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고도성장 시대는 수많은 시대의 멀미와 탈락과 아픔을 낳았고 범죄 또한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나쁜 놈들 때려잡는 뭐 그런 드라마 없나?” 고위층의 이런 뜻이 전달됐고 경찰 드라마가 기획됐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초반에는 별 인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는 조기종영의 뜻을 표했고 극중에서 ‘박 반장’을 연기했던 최불암은 이에 광고까지 직접 따내고 다니며 드라마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드라마이기에 물론 현실과도 다른 점은 많았다. 그 시절 강력계 형사들은 수사반장처럼 신사적이지 않았고 용의자에게 폭력은 다반사였고 고문을 통해 답을 내는 경우도 많았기에 어떤 범죄자들은 경찰들에게 “왜 수사반장처럼 안하냐.”고 했다가 경찰서에서 작살이 나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반장>은 나쁜 놈들 때려잡는 정의의 경찰의 구도에서 벗어나고 (또는 벗어나게 됐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드라마로 남을 수 있었다.

<수사반장>은 80년대 초반 1차 폐지됐다. 최불암씨의 증언. “5공 출범 이후 새로 온 사장이 드라마 세개를 폐지시켰어요. <113수사본부> <암행어사> <수사반장> 이유는 5공에서는 반공태세가 잘 돼 있고 암행할 이유도 없고 치안도 안정돼 있으니 이런 드라마는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였죠.” 그러나 5공의 판단은 틀렸다. 시청자들은 수사반장의 폐지에 항의했고 얼마 뒤 부활했고 80년대 10대 사건 시리즈를 재연하면서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이제 수사반장에 출연했던 형사 역할을 했던 배우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는 반장이었던 최불암씨 뿐이다.